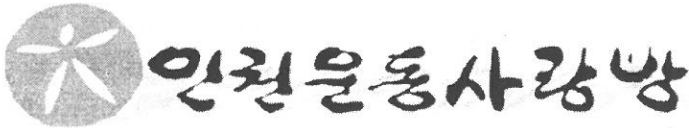


사랑 사랑

제86호 (2002/2/22)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9 4층

대표전화: 02-741-5363, 팩스: 741-5364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lian.net

인터넷 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편집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총무)



'전쟁광'을 불태우다

2월 21일 남영동 삼거리에서 진행된 성조기 화형식 - 사진 : 참세상뉴스

나의 인권이야기

나의 법적 권리,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이민정(공꾸는사람들 회원)

알리¹⁾의 직장 이야기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나의 법적 권리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라는 문서를 보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그런 문서였는데 굳이 그런 문서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일상적으로 직장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아니 포기하도록 강요 당해왔는지 알 수 있다.

난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벤처회사에서 근무했었다. 사람들은 벤처회사라면 일종의 환상을 품는 것 같다. 열심히 일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젊을 때 한 순간 열심히 일만 하면 꿈이 이루어 질 것처럼 말들 한다. 실제로 내 주변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한다. 벤처회사,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통신 업체의 사람들은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에 비하면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다들 꿈을 쫓아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많은 부분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 같다. "벤처니깐" 혹은 "이 바닥은 원래 다 그래" 뭐 이런 이야기 말이다.

난 지난 3년의 회사 근무 시간 동안 휴가를 써본 적이 없다. 비단 나뿐만의 일이 아니었다.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 중 유독 전산파트 사람들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이 바쁘다는 단순한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가 된다. 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일의 양을 부과하고 작업 스케줄을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일 되는 야근과 휴가 반납을 요구한다. 더구나 대다수가 남자 직원들이라 여성직원의 당연한 권리인 생리휴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루 쉬어서 늦어진 일은 밤을 세어서라도 보충하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나 한다.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월차 휴가, 생리휴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아무도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뭐 누구나 일하는 것 보다 쉬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건 노조가 있는 큰 사업장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의 벤처이데올로기

○ 노동시장의 분화 / 서열화 / 비정규직 확산

정보통신부문의 노동시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점차 숙련도(진입서열)에 따른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수치는 신뢰하기는 힘들어도 97년 5.5%에서 99년 8.6%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Park and Yu, 2000).

문제는 고숙련 노동자들이 일정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계약과정(성과급, 연봉제 등)이 비숙

1) 이민정 씨의 애칭입니다.

런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대다수 정통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 이는 타 업종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유연화 전략 / 비정규직 증대와 맥을 같이 할 뿐더러 선도적인 실험장과 표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일상적인 구조조정

일반적인 기업에서 IMF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과 달리 기업과 투자의 불안정한 특성상 기업/산업의 태생과 함께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위 이 업계에서 구조조정은 하나의 아이디어나 신기술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들거나 투자실패로 실질적인 경영난에 부딪힌 경우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과 투자유치를 위한 외연적인 경영혁신전략까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조정은 분야/사업별 라이프 싸이클이 짧다는 특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고 임의적이고, 조작적인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자유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벤처거품 누수현상이 일어나면서 전략적 핵심부서를 제외한 부분의 아웃소싱,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하고, 비정규직화가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굳이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SI업종에 있어 파견, 격지근무는 거의 상식적이다. 이런 잦은 업무 전환 배치와 정리하고 등이 아무런 제어 없이 부실한 경영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와는 별개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수단(노동조합)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 벤처 이데올로기의 지배

이런 열악하고 불평등한 시장특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2%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는 이런 시장특성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의 현실적 필요로 작동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몇 가지의 물질적 근거와 그에 대한 과대포장에 근거하고 있다.

1. 노동의 자율성 보장 / 2. 능력에 기반한 인사와 처우 / 3. 수평적 조직구조
4. 보상관리 / 5. 경영참가 / 6. 직무만족도

이런 각 항에 실제적인 현실은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여러 통계자료에 언급되고 있다.

○ 벤처, 불안정노동의 또다른 얼굴

벤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첨병으로써, 경제의 금융화(위기)를 가속시킴과 동시에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속화시키는 반노동자적인 정책에 불과하며 따라서, 벤처 노동이라는 허상에 갇혀있는 한, (주되게) 정보통신업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벤처 노동자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사실 모험을 둘러싼 노사간의 근친성(!)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주주로서의 권리(창업주로서의 권리)가 강조되어 있으며 이는 (성공한) 벤처업계 내의 집적과정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단결권을 반대하면서 주주의 행동(스톡옵션, 우리사주, 소액주주)만이 보증되었을 뿐이다.

벤처이데올로기 속의 쟁점

○ 노동조건외의 문제

-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존 :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보상받는다.

많은 기업이 98, 99년 전후 설립되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초과근무와 야근을 해야 했다. 기업초기, 기존의 산업이 자기 사업의 시장성을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그야말로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수익을 올리는데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언젠가 쥐구멍에도 대박 터질 날 있다'는 기대감 - 스톡옵션을 통한 보상 등 -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하였다.

- 노동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 성과급제 등을 통한 보상

그러나 누적되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누그러트리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를 동원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식은 성과급제 지급 등 다시 노동자들의 내부 경쟁에 의한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을 띠었다.

○ 고용의 문제

- 병역특례자를 포함한 비숙련 노동자의 대거 진입

벤처기업이 실업률을 낮추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실제 많은 산업 기능요원과 비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벤처자본은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또한 노동자들을 어렵지 않게 통제할 수 있는 호조건을 누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멀티노조와 같이 병역특례자의 노동3권과 각종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한다.

- 높은 이직률과 직무의 불안정

회사가 투자실패나 실제적인 자금난에 부딪힌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장과 투자유치를 위한 외연적인 제스처까지 이미 업계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 정리해고와 노동조건 하향 조정을 강요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은폐되어있던 노사갈등은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함께 고생해왔던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한다. 결국 많은 경우 '배신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특히 노동자의 평균연령대도 낮고, 몇몇 규모있고 네임벨류 있는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기업의 경우, 일자리 지키기에 대한 절실함도 없으며, 퇴사와 재입사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방식 등 이직에 대한 제한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특정 사업부나 프로젝트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인력을 외부에서 고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퇴사와 재취업의 반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식은 매우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불안정성이 생계와 직결되는 고용불안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는 듯 하다.

○ 회사내 지위와 처우문제

- 주먹구구식 인사노무관리, 형식적인 경영참가 보장

초창기 기업은 기존 기업과는 달리 체계 없는 주먹구구식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부분 인맥과 연고위주로 이루어진 기업이 많은 특징도 한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전과 같은 감시통제와 관리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다

는 벤처기업의 고유한 기업 문화인 낭 포장되고, 실제 노동자들에게도 회사 운영상의 각종 불합리한 경우들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요즘의 알리는

현재 알리는 정리해고(?)가 된 백수이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의 회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회사는 폐업 준비중이다. 그 동안 밀린 체불임금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금씩 분할납부(?) 받으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하여 참 많이 뛰어다니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은 정부가 해주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일한 대가를 보장받는 것이 참 어려운 아주 XXX 같은 현실을 체험하였다. 3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가졌던 고민들이 이번 일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해 졌다 구 할 수 있다.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나의 법적 권리를 지키지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내가 얼마만큼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을지....

꿈파커스톤

이 동수

*꿈파'란 '꿈꿈러 따지며 살자'의 준말어에염^^..



연수보고

‘약속의 땅’ 빠야타스의 사람들

고근예(인권교육실 상임활동가)

지난 2001년 10월 24일부터 올 2월 16일까지 필리핀으로 인권교육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인권교육’을 주제로 연수를 떠난 터라, 인권단체며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방문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PAYATAS²⁾라는 빈민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그 곳에서 만난 분은 한국인 신부님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빠야타스에서 방문한 한 초등학교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칠판도 없고, 책상도 없는 공립학교의 얘기를 너무도 많이 들은 터라 빈민촌의 공립초등학교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상도, 걸상도, 그리고 칠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도 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2000년 빠야타스의 쓰레기 산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³⁾ 이후 그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고 방문하는 정치인들을 맞기 위해 도로는 포장도로도 바뀌고 그 외 많은 것이 좋아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학교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선생님 얘기는 여전히 학교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비가 무료인 초등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중에도 무사히 졸업을 하는 경우는 10명중에 6명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빠야타스만의 경우가 아니라 공립학교의 통계입니다. 교실 벽에 걸려 있는 ‘교육의 권리, 놀 권리,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의료보장의 권리 등등’의 아동권리조약이 정말이지 단순한 ‘환경미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초등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교육부를 방문했을 당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필리핀은 초등 6년, 고등 4년 체계)에서 사용하는 인권교육 교재를 받아 본 저로서는 ‘어처구니’라는 말이 저절로 증얼거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책이 백 번 좋으면 뭐하나,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데...’하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

학교에서 나와 포장도로가 아닌 좁은 골목길을 돌아 돌아 10여분을 걸으니 말로만 들던 쓰레기장이 보였습니다. 평지인 마닐라에 쓰레기를 가져다 쌓으니 산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오고가는 쓰레기 더미에서 고무 호수를 붙여 태우고 있는 아이들은 고무호수 안에 들어 있는 쇠붙이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쓰레기장 곳곳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검은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 빠야타스의 전체인구는 20만. 쓰레기 산을 주변으로 7만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주로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폐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3) 2000년 7월 빠야타스의 쓰레기 산이 많은 비로 무너져 내렸다. 정부는 70여명의 사망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빠야타스의 주민들은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빠야타스에서 찾아 간 어느 가정집은 양철지붕과 관자로 되어 있었는데, 집안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는 쓰레기장에서 모아 온 20여 개의 기름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 하얀색 기름병인데, 까만 점이 무. 수. 히 많았습니다. 까만점?? 까만점은 사람이 지나가도 움직이지도 않는 파리 떼들이었습니다.

7명의 아이들을 두고 있는 이 부부는 빠야타스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부님이 설명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신문지며, 종이찌가리들이 커다란 비닐에 담겨 있었는데, 1kg에 4페소(약100원)하는 휴지를 모아서 냉장고며, 티비를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산에 사는 사람들이 티비에 냉장고? 간혹 한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놀라는데, 빠야타스 사람들에게 냉장고와 금팔지, 금 가락지는 저축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때론 망할지도 모르는 은행에 어떻게 모은 돈인데, 말기냐는 것이죠.

빈곤을 이야기하면 인도나 아프간스탄도 있으니, 필리핀의 가난은 축에도 못 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 지역에서 빈곤의 바닥만을 확인했다면 무척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절망했을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정부로 한 달에 3만원을 버는 이야기들은 필리핀 어디에나 있으니깐요.

범죄를 짓고서 숨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 사소한 싸움에도 목숨을 잃기도 하는 곳, 결핵과 피부병이 끊이지 않는 곳, 저녁 10시만 되어도 길에 돌아다니기가 어려운 곳. 죽은 사람의 장래를 치를 비용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빠야타스의 이야기들은 눈물이 날 만큼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래도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룹을 만들어 저축을 해서 회원들이 서로서로 집을 만들어 주고 있었고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청소년들은 위한 비정규 고등학교·유치원을 만들고, 공동운영의 작은 가내 수공업과 아이들을 위한 마을금고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마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빈곤의 상징, 빠야타스였지만 어느 곳보다도 활기에 넘쳐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빠야타스의 의미처럼 생존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이 찾는 곳. 비록 빈곤이 필리핀을 짓누르고 부패와 부정이 희망을 뒤엎고 있었지만 빠야타스에 갔을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때 즈음 저는 희망을 찾고 있었으니깐요.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원리’를 알면 보인다

인권하루소식 기자 ‘범용’이

이번 달 <사람사랑>에 실릴 글을 쓰기 위해 마음을 먹자마자, ‘원리를 알면 보인다’고 선전하는 어떤 학습지 광고가 내 머리 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입시를 위해 점수를 높여야 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홀깃’ 앓아갈 법한 이 명제가 인권하루소식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 인권하루소식에도 나름의 원리가 있다.

<울림>으로 만나는 영상들

지난달 19일자 [인권영화보기]란 쪽지로 「가리봉동 그 변방의 사람들」이라는 영상물이 최초로 소개됐다. 눈썰미 있는 독자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격주 토요일마다 영상물을 소개하는 기사가 꾸준히 나가고 있다. 2일자에 소개된 「겨울에서 겨울로」, 16일자에 실린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등, 인권영화제 김정아 상임활동가의 섬세한 묘사 아래, 인권하루소식 속에서도 한편의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권영화보기’라는 쪽지 제목이 너무나 무겁다는 의견이 있어, 인권영화제 소식지의 제호인 [울림]으로 이름을 변경한 이 쪽지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이제는 매주 수요일자에 고정시킨 [클릭! 인권정보자료] (아래 [클릭]) 쪽지도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창립 초기부터 인권정보자료실을 운영하여 밑바닥 정보를 수집하며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가공해 왔다. [클릭] 쪽지는 바로 인권정보자료실에 보물처럼 쌓여진 정보들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기획됐다.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란 인권정보자료가 있는지 알 수 있으랴? 20일자 인권하루소식은 [클릭] 쪽지를 통해 이를 소개했다.

하지만 [클릭] 쪽지는 반드시 인권정보자료실 내의 자료만으로 소재를 한정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발행되거나 묶여진 숨은 인권정보자료를 발굴해, [자료읽기], [책읽기]란 쪽지 제목으로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여하튼 숨겨진 인권정보자료들을 발굴하기 위해, 인권정보자료실 최은아 상임활동가는 오늘도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있다.

매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만나요

올해 들어 인권하루소식은 야심차게 지면을 할애해 매주 목요일자로 <아동권>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들은 [울림]이나 [클릭]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쪽지가 아니다. 지난달 24일자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같은 달 31일자 “정부, 장애

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이번 달 7일자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등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상임활동가들이 번갈아 작성한 기사들이다. 앞으로 <아동권> 쪽지에는 한국아동의 인권실태가 계속해서 실릴 예정이다. 이 내용들은 아동권조약에 관한 정부의 이행상태를 진단하는 민간단체 대안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진다.

기획사업팀 현안 발굴 기사

인권운동사랑방은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를 통합했다. 이름하여 '기획사업팀'! 기획사업팀 이창조 상임활동가도 매주 하나씩 기사를 쓴다. (사실은 하나 이상이지만...) 원래 기획사업팀은 매주 금요일자에 기사를 쓰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사업팀이 쓰는 기사거리가 현안과 워낙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기사를 맞추기가 어렵다.

지난달 30일자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같은달 31일자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이번달 6일자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20일자 '대우차 해고자, 상처와 회한의 1년' 등은 기획사업팀의 주요활동을 적극적으로 외화하려는 시도들이다.

해외소식에도 여력을

한편, 매주 토요일로 쪽지를 고정시키려 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쪽지가 있다. [해외소식] 쪽지다. 국제기사는 최소한의 영어실력을 지니고 있어야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인권운동사랑방에는 사실 그만한 역량을 지닌 상임활동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편집장이 지난달 30일자로 쓴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과 이번달 16일자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라는 기고 글은 [해외소식] 쪽지에 대한 의지를 그나마 이어가고 있다. [해외소식] 기사 작성을 위해 조만간 보다 책임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 지면을 빌어 약속하는 바다.

<공지> 메일링리스트 가입 및 이메일 <사람사랑> 신청 접수

올해부터 <사람사랑>을 이메일로도 발송합니다. 우편발송업무와 비용을 다소 줄여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아직 html이나 텍스트파일 형식으로 편집하는 기술을 몰라서, 준비가 될 때까지는 한글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사랑방 후원자 메일링리스트인 <sabalnabal>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께는 이미 공지한 바 있고, 많은 분들이 이메일 발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sabalnabal> 가입을 원하거나, <사람사랑>을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업/보/고

(2002년 1월 넷째 주 - 2월 셋째 주)

인권교육실

1. 아동권보고서 준비 박차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른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이미 제출된 정부보고서를 분석하여 조사 항목을 세분하고, 관련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한편 관련 현장활동가와 면담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제출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4월까지 한글 보고서를 만들고 영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권리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에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중학교 재량활동용 교재 『더불어 사는 세상 배우기』를 출간했습니다. 인권교육실은 이 책의 제 2장 인권 분야를 집필

했습니다. 이 교재는 전국 중학교에 배포된다고 합니다.

3. 경희대에서 이번 학기 개설된 교양강좌 '한국사회와 인권'의 수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강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대학교 인권교육의 의미 있는 보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감옥인권팀

1. 구치소 사망사건 대응

1월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순원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 씨는 사망하기 5일전부터 복통 및 호흡곤란 등을 구치소측에 호소한 바 있는데요, 교도관들은 조 씨를 체한 것으로 단정하고 소화제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

● 인권정보자료목록 ●

◆ '운동사회 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 ◆

1.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소개 글
2.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례 모음(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2001)
3. 쥐는 언제나 고양이를 물어서는 안 된다?(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경제와 사회』 2001년 봄호 제49호)
4. 성폭력의 정치에서 젠더정치로(황정미, 『경제와 사회』 2001년 봄호 제49호)
5.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노동운동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서정영주, 『여성과 사회』 제12호)
6. '운동사회 내 성폭력' 관련 신문자료들

자료 문의 :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다. 또한 사망하기 바로 전날인 6일부터는 병세가 매우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계속 방치하다 결국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오후 7시경 외부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 씨가 고통을 호소하던 날,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박명원 씨 역시 뇌사상태에 빠진 채 외부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동료재소자들은 박 씨가 수감당시부터 기침을 매우 심하게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은 박 씨가 오랜 노숙자 생활로 심신이 약해진 것으로만 치부하고 동상약을 지급하는 것 외엔 일체의 치료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함께 수감됐던 동료재소자들은 박 씨의 치료를 요구하며 똥문은 박 씨의 수의를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달동안 박 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고요, 결국 현재까지 뇌사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렇듯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수용자가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유족들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정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박명원씨에 대한 치료비 전액 부담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수용자 의료권 확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달 2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25일에는 법무부를 항의방문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2월초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오는 2월 25일경에는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법조인 선언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2. 상반기 활동계획 수립

감옥인권팀이 상반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현재 발생한 구치소 사망사건 관련 싸움에 많은 여력이 할애될 것 같은데, 이번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3-4월에는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심포지엄'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수용자 의료 문제에 대한 사법적 운동 방법으로 미진한 행정법 의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상반기동안 감옥팀이 주력할 사업은 감옥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행정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수용자와 감호자가 알아야할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오는 5월부터는 2년간 감옥팀이 받은 상담을 모은 <감옥 상담 사례집>과 수용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적은 <감옥 인권지침서> 발간 작업에 여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올 한해에도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감옥법령집 구입 문의

- 유해정 (yhj-bear@hanmail.net)

기획사업팀

1. 공소시효 배제운동

지난 연말 수지김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획사업팀은 6개 사회단체와 함께 1월 30일, '수지김 사건 조작'의 책임자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기획사업팀은 현재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상반기 동안의 집중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 대체복무제 투쟁 새국면

2월 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발족했습니다. 사랑방도 참여하고 있는 연대회의는 발족식을 통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특히 사랑방 후원회원과 후원회원 여러분이 직접 모아주신 참여자가 모두 80명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연대회의 발족식 이후, 법원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점차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소식이 계속 궁금한 분들은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메일링리스트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 - CO>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인권정보자료실

1. 자료수집팀 힘다지기 가져

지난 한해동안 자료수집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이수진, 정희경, 황수용 씨와 함께

2002년 계획을 짰습니다. 앞으로 자료수집팀은 현장 지향적 자료 수집을 목표로 팀원들이 인권수집 전문활동가로 양성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집할 자료를 이슈별로 모니터하면서 자료묶음을 제작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되, 팀원들이 일상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정보브리핑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자료 수집의 소스를 다양화하고 현장 활동에서 특정이슈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현장조사, 사례집 제작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2.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주제어 분류 작업 진행 중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은 창간 준비호부터 2000호까지 합본호 색인을 보면서 분류기준의 틀거리를 짜는 일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인권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한 인권하루소식은 A4 6천여 쪽, 1만2천여 건에 이르는 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세밀한 분류기준과 주제어 선정작업은 데이터베이스 검색기능의 핵심을 이루기에 세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촉구 1000인 선언 참여명단

- 강동균 강진희 강현정 고창수 김기찬 김대성 김민숙 김상준 김선호 김은미 김은영 김은욱 김재중 김재혁 김지수 김찬 김현정 김현주 김형찬 나창진 나희선 남성욱 노영민 류경원 류지혜 문현주 박근영 박상희 박은주 박의영 박정원 박채훈 서미경 서현수 성현주 송안화선 송은경 송은정 신동호 신현종 심은하 심은희 안은수 양진수 오민 우현주 윤민성 윤찬식 이경희 이기선 이동수 이병래 이병재 이영태 이윤정 이재용 이준수 임경수 장경주 장라진영 장용창 전대진 정문영 정석범 정수현 정영미 정욱희 정임자 정혜영 조영미 조찬구 지윤창 차승엽 최한수 최현숙 한희정 홍미자 홍성원 홍성호 (이상 80명)

사/랑/방/소/식

(2002년 1월 넷째 주 - 2월 셋째 주)

1. 1/4분기 상임활동가 총회

2002년 들어 첫 상임활동가 총회를 2월 8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가졌습니다. 상임활동가총회는 1년에 4번 열리며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을 포함하여 열리는 전체회의를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연구원을 제외한 활동가들이 '상임활동가 회의'를 갖습니다. 평소 현안에 쫓겨 깊은 토론을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밤을 새워도 할 얘기는 너무 많았습니다.

2002년 정세전망을 각 부문 운동 동향과 함께 살펴보았고, 사랑방이 올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또한 선거정국 속에서 인권운동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2. 테러방지법안 다시 꿈틀

작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의 입법예고로 시작된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투쟁은 법안을 12월 8일까지 통과시키겠다던 국정원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69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이 연일 시위, 농성, 토론회 등을 가졌고, 김홍신 의원 소개로 제정반대 청원을 400여명의 개별 진정인을 조직하여 '입법반대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안 제정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에 계류된 상태에 머물렀던 법안에 대해 여야 총무가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합의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정보위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하며 27,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투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준비하는 한편 유인물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3. 고근에 씨 귀국

필리핀에 인권교육 연수를 갔던 교육실의 고근에 상임활동가가 밝은 얼굴로 2월 16일 귀국했습니다. 4개월여 동안 필리핀의 인권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빈민지역과 전쟁지역을 누비다 온 고근에 씨의 자세한 이야기는 <인권하루소식>과 <사람사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인권교육 교과서를 비롯해 잔뜩 들고 온 자료목록도 곧 공지될 겁니다. 고근에 씨의 연수는 IHRIP(국제인권연수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습니다.

4. 총무 교체

지난 1년간 총무를 맡아왔던 이창조 씨가 기획사업팀 활동에 전념하기로 하고, 이번 <사람사랑> 제작을 끝으로 총무직을 이월합니다.

새로 총무를 맡게 된 분은 4개월간 필리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인권교육실의 고근에 씨입니다. 세심한 성격의 신임 총무에게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5. 심태섭 활동가 사임

1년6개월 여 동안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활동해왔던 심태섭 씨가 상임활동가직을 사임했습니다. 한때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북적거리던 사무실에 이젠 빈 책상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2002년 1월 회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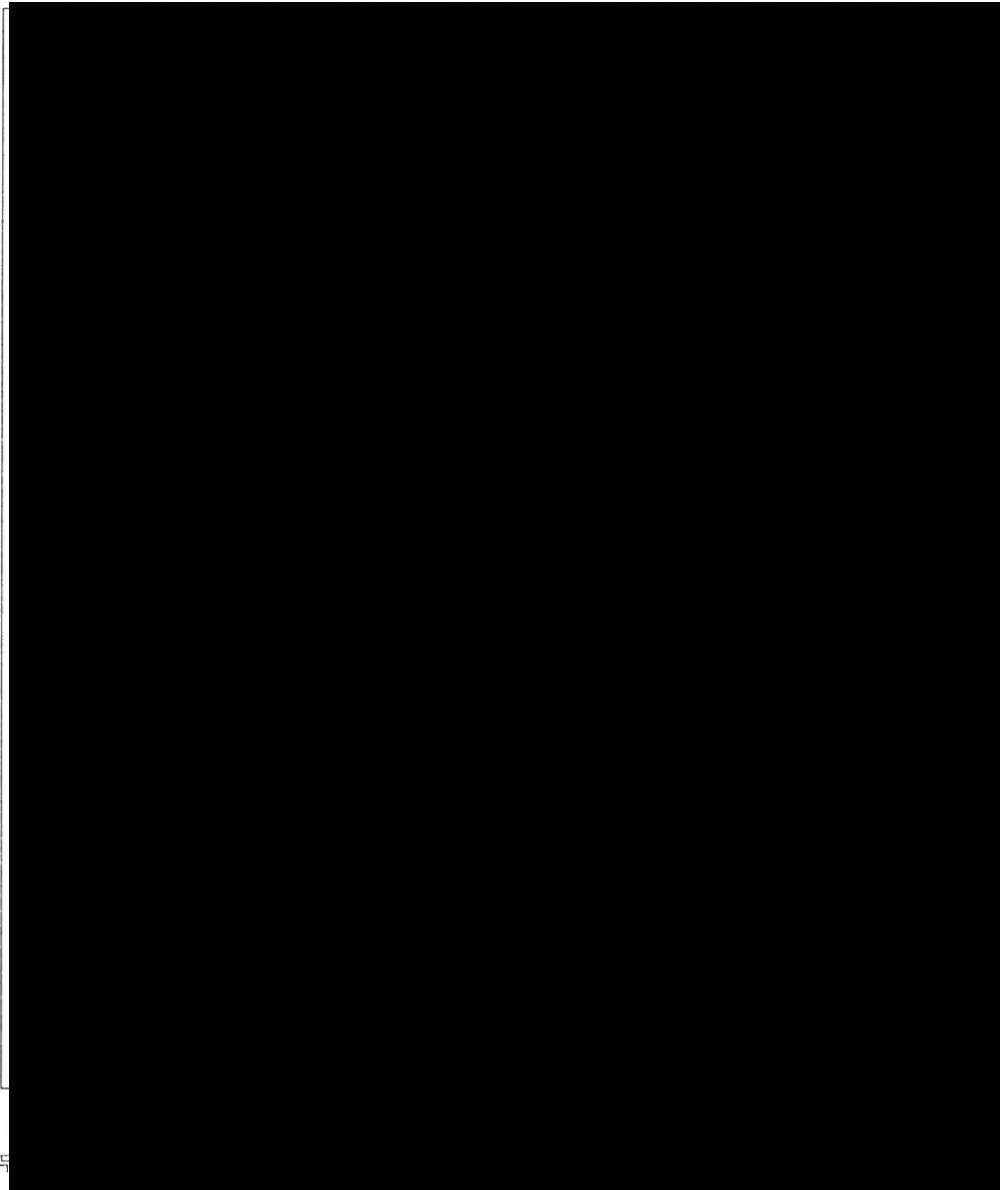
(2002년 1월 17일 - 2002년 2월 16일)

이월금 : 207,331원	
수입	지출
<p>사업수익 2,126,92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소식 1,929,550원 구독료 1,903,090 라디오방송 26,460 -간행물 판매 75,000원 인권교육길잡이 1권 깨어나일어나 1권 아시아의 인권교육 1권 국제인권규약 1권 활동가자료집 1권 -자료제공비 122,370원 <p>후원금 4,277,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후원 4,277,000 <p>상임활동가 기여금 410,000원</p> <p>재정사업 128,5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비디오판매 128,500 <p>기타 20,000원</p>	<p>사업비 656,38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소식 우편발송 168,800원 -자료실 28,520원 -인권교육실 11,970원 -감옥인권팀 24,410원 -연대사업 110,000원 -사람사랑 제작발송 124,700원 -감옥법령집 제작 150,000원 -출장비 15,400원 -기타사업비 22,580원 <p>활동비 3,150,000원</p> <p>사무실유지비 948,010원</p> <p>통신비 1,165,620원</p> <p>사무비품 231,800원</p> <p>사무국 식비 300,550원</p> <p>생활비 158,900원</p> <p>난방비 146,500원</p> <p>정간물 구독료 110,000원</p>
총수입: 6,962,420원	총지출: 6,867,760원
잔액:	301,991원
부채:	1,500,000원

● **특별사업기금**

- 이월 : 16,979,940원
- 수입 / 지출 내역 없음

<1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 2/15일(지로는 2/13)까지



<2002년 1월 재정 세부내역>

2000년 겨울, 아쉽게 시작한 『인권비디오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및 어린이 인권서적 <깨어나 일어나> 판매사업이 1년만에야 손익분기점을 통과했습니다. 이달부터 순수익으로 재정에 포함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좋은 인권비디오와 책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널리 입소문 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와 '건강보험 공동대책위원회' 연대사업 분담금과 부시방한 반대 700인 선언참여 등에 연대사업비가 지출됐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오디언스 기사제공료를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달 10여만원 정도의 기사제공료를 청구해 받아왔는데요. 이를 모았다가 컴퓨터 구입과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 청구할 계획입니다.

